교회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이달의 캠페인 - 가정을 교회같이, 교회를 가정같이

◎ **선교학교:** 바누아투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육은 '바누아투 배우기(문화, 역사, 선교현황)'입니다. 시간: 오후 7시(금) 장소: Chapel 실 (기도: 박덕철 장로)

◎ **연합 축제:** 가을 운동회와 함께하는 바자회가 6월 2일(월, Queen's Birthday)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홀과 마당에서 있습니다. 바자회를 위한 물품 기증을 6월 1일까지 받습니다. 특별히 의류, 슬리퍼, 운동화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연합축제 일정입니다.

1부(10시~12시): 공동체 대항 친교 탁구대회, 종목-남녀단식, 혼합복식(팀구성이 어려운 공동체는 두 공동체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2부(1시~3시): 스킷 드라마 및 워십-바누아투 선교팀, 피구대회-청팀(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15명 VS 홍팀(루마니아, 터키, 바누아투, 통가) 15명

6월 1일 주일까지 각 공동체는 탁구 및 피구대회 선수명단을 행사진행 부원들에게 꼭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초빙:** 8월 말 찬양제 참여를 위해 찬양대 객원 대원을 모십니다.

◎ **감사:** 오늘 점심식사로 섬겨주신 베트남 공동체와 어저께 밀알 선교단 급식 봉사로 수고하신 현석호장로님(임병숙권사님), 이옥화집사님, 김철재집사님(문일숙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출국:** 담임 목사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5월 29일 돌아옵니다.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소식

◎ **등록**: 강기동, 문지현 성도 Unit 11D, 18 Scotia Pl. City 1 남, 여선교회
전화: 021-145-8047/021-0250-4588

해외선교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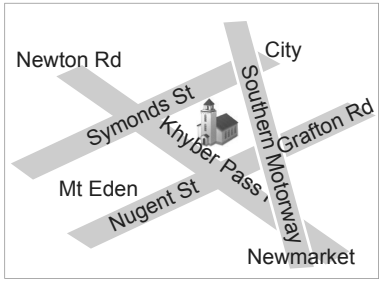
국내봉사 밀알장애우 봉사 Auckland City Mission

온라인선교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태한 (Tae Han Lee)

부목사 (Assistant Pastor)
심창진(Chang Jin Sim)
이성철(Sung Chul Lee)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Rome 12:15

2014년 5월 25일 주일 16권 20호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오월

"아, 오월이군요." 헨리 8세의 왕비였던 앤 여왕이 부정의 누명을 쓰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하늘을 우러러 마지막으로 한 말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달이 바뀌면 "벌써 몇월이네." 혼잣말을 하지만 올해의 오월은 참담한 고국의 소식으로 한숨과 함께 "어쩌면 좋아." 라는 말을 함께 토해낸다. 수필가 피천득님은 "오월은 금방 찬물에 세수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 오월은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비취 가락지다. 오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오월은 모란의 달이다." 라고 쓰고 있다. 지금 고국의 오월은 이름 봄꽃이 지고난 뒤, 향기짙은 라일락이 골목마다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싱그러운 녹음이 성하의 여름을 예고할 때이다. 고국의 내가 살던 옆 저택엔 늙은 라일락 나무가 담 밖으로 절반을 내어주고 있었다.

해마다 라일락이 필 때면 크고 밝은 등을 나무 윗쪽으로 비추게 해놓아 온 동네가 등롱을 밝힌 듯 환해서 지나가는 이도 한번쯤은 담 안쪽을 올려다 보며 애써 맡으려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향기에 취하곤 했었다. 저녁을 먹은 후 아주 편안한 차림으로 슬리퍼를 끌고 그 집 담 밖 나무 밑에 서면 어느 추억속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만의 비밀스런 말을 해도 될 것 같은 착각이 슬몃 나를 미소짓게 했었다.

푸른 하늘과 신록의 달, 앤 여왕이 마지막 올려다 본 그 하늘은 내 고국의 오월과 닮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이 곳 뉴질랜드의 오월은 겨울 장마를 예고하듯 자고 일어나면 화초들이 비에 젖어있고 여름 내 말라있던 나무데크에 이끼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아침에 깨면 습관처럼 먼저 열어놓던 창문도 열지 않고, 감기예방 접종이며 눅눅한 빨래 등 겨울 채비같은 일상의 오월에 살며, 슬픔에 빠진 고국의 소식에 티슈통을 옆에 놓고 잘못 써진 원고지를 구겨 던지듯 콧물 눈물을 찍어내며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좋게 잘 해주시고자 우리 곁에 부활로 오신 그 분은 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아파 하실까. 어느 시인은 사월은 잔인한 달이다. 또 사월은 천치와 같이 중얼거리며 꽃뿌리며 온다 했다. 고국의 사월은 잔인하게 왔다가 천치와 같이 중얼거리며 지나갔다. 피천득 님은 "신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오월 속에 있다." 말한다. 나는 어두운 하늘과 가랑가랑 내리는 빗속에서 고국의 오월을 본다. 등롱같던 라일락과 푸른 하늘과 신록을… 마음에 빛이 없으면 환한 방도 어둡다 했다. 슬픔으로 가득찬 가슴 속에 작은 등롱 하나씩 켜드리고 싶은 오월 속에 나는 있다. -이경자권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갈보리교회 Calvary Kore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담임목사: 이태한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심창진목사

전 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히브리서 10:22, 요한복음 4:24
개 회 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 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성 시 교 독	39. 시편 95편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대 표 기 도	박병민 장로
성 경 봉 독	시편 57:6-11
찬양대 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남.인.시**/심창진목사
찬 송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응 답 송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축 도	심창진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찬 양	수요 찬양단
기 도	김태만 집사
성 경	느헤미야 1:5-11
설 교	**느헤미야의 기도**/이성철목사
합 심 기 도	인도자
광 고	인도자
찬 송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주 기 도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Seira 자매

⊙ 6월 교회일지

연합축제: 6월 2일(월요일)
공동체주간 수요예배: 6월 4일(수요일)
성령강림주일: 6월 8일(주일)
삼위일체주일: 6월 15일(주일)
성찬주일: 6월 22일(주일)
향존직분자 기도회: 6월 29일(주일)
단기선교: 6월 30일(월) - 7월 7일(월)

⊙ 5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남영수/김현주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박후임 집사
다음 주일: 최광암 집사
다음 주일 청년부: 최정인 형제
6월 4일 수요: 정옥자 권사
6월 4일 애찬: 최현철 집사
6월 8일 주일: 현석호 장로
6월 8일 청년부: 박병민 장로

금주의 기도제목

1.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2. 선교학교가 끝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연합 축제가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축제가 되도록
3. 가정의 달은 끝나지만 이 땅 위에 세워주신 가정 공동체가 주님 은혜로 세워지고 회복되도록
4. 태국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정국이 빨리 안정되어지고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5월 새벽기도회 본문

30일: 사무엘하 15:13~23 진정한 충성과 배려는 어려울 때 더 빛납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보고 싶은 성도님들에게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국의 초 여름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열린 총회를 은혜 중에 마치고 지금은 다음 주 26, 27(월, 화)일 양일간 개최되는 선교사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시간 연거푸 타는 비행으로 좀 힘들었지만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총회 기간 중에 만나 밤 늦게까지 함께 교제했던 선교사들 중에 전기봉 선교사의 사역과 간증을 짧게나마 함께 나누며 기도 하려고 합니다.

전기봉 선교사는 중국, 네팔, 티벳 (히말라야 산 지역), 인도지역을 다니며 소수 민족들에게 교회를 지어주는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을 마치고 목사의 길로 들어선 선교사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느 선교사들처럼 한곳에 정착하지 않고 위에서 언급한 세 나라를 아우르며 소수종족들 만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만 지어놓으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예배당으로, 학교로, 공동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고 그때 복음을 전하면 모두들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기쁨이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현재까지 123채의 교회를 지었고 올해만 해도 9군데에서 교회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몇 채의 교회를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말에서 총회에 함께 참석한 오클랜드의 다른 두 목사와 저는 큰 감동과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수 종족들과 함께 직접 돌을 나르다가 넘어지면서 돌이 이마를 내리쳐 움푹 패인 흉터, 심장병으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남은 평생 선교하겠습니다"라고 매달렸 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주신 일,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혹한의 추위 속에서 미화 80불로 넉 달을 살면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 강아지를 품에 안고 서로의 체온으로 이겨낸 시간, 이곳에 꼭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재정이 없어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신 주신 하나님, 끝이 없이 간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촌로의 얼굴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주안에서 평안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제목

1. 세워진 교회를 통해 구원 받는 종족들이 일어나도록.
2. 꼭 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에 세워지도록.